

■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분석”(최효미 연구원)

-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상위 소득주준에는 임금근로자(2003년 6.4%)보다 자영업자(2003년 10.2%)가 많은 반면, 최하위 층에서도 자영업자(2003년 14.3%)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자영업자의 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양극화되고 있음.
- 자영업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성 자영업자 혹은 고령 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의 모색이 필요

문의처 :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김용현 연구원

Tel : 783-7155 E-mail : yhk08@kli.re.kr

*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http://www.kli.re.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분석

담 당 자	최효미 연구원
전 화	02)782-0141(241)

1.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특징

○ 한국노동패널 1차~6차년도 조사자료(1998~2003년까지의 농림어업 종사자를 제외)를 활용한,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 변화와 근로소득의 분석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와 비교되는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자영업 종사자비중은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감소(1998년: 17.1%→2003년: 13.3%)하였고,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에는 자영업자의 평균근로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조금 낮았으나, 1999년부터는 오히려 자영업자의 평균근로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상회하고 있음.
- 둘째, 자영업자의 소득수준별 분포를 보면 적자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의 비중(1998년: 20.6%→2003년: 7.1%)이 크게 감소하고, 같은 기간 중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그러나 평균근로소득(실질소득 기준)이 100만원 미만 자영업자의 비중(1998년: 33.8%→2003년: 41.2%)이 크게 증가하여 저소득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짐. 적자인 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이들이 최소한의 소득이라도 보장되는 임금근로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거나, 저소득 자영업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1〉 구간별 자영업자의 소득분포 비중(비농 전산업)

(단위: %)

	적자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1998	20.6 (20.6)	33.8 (33.8)	33.7 (33.7)	9.5 (9.5)	2.4 (2.4)
1999	16.1 (16.1)	36.4 (36.4)	36.3 (36.3)	8.7 (8.7)	2.6 (2.6)
2000	9.0 (9.0)	35.3 (35.3)	40.8 (40.8)	11.1 (11.1)	3.8 (3.8)
2001	10.5 (10.5)	31.7 (46.2)	35.4 (33.6)	16.7 (7.6)	5.7 (2.2)
2002	8.2 (8.2)	23.8 (38.5)	37.4 (36.2)	18.4 (11.6)	12.2 (5.5)
2003	7.1 (7.1)	24.4 (41.2)	35.8 (33.4)	20.6 (12.5)	12.1 (5.8)

주: 1) 괄호 안은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구한 비중

2)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소비자물가지수 2000년=100)

3) 소득이 0인 경우는 100만원 미만에 포함됨.

- 셋째,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의 최상위에는 임금근로자(2003년 6.4%)보다 자영업자(2003년 10.2%)가 많은 반면, 최하위층에서도 자영업자(2003년 14.3%)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자영업자의 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양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넷째, 각 종사상 지위별 자영업 부문의 소득순위를 10등분하여 분석한 결과, 자영업부문의 소득격차가 임금근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최상위에 속한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03년 469만6천원(자영업자 전체 소득 중 비중 30.3%)으로 최상위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 315만4천원(임금근로자 전체 소득 중 비중 24.0%)에 비해 154만2천원이 나 많은 것으로 분석됨.
- 다섯째, 이러한 소득 양극화 현상은 최상위에 속한 자영업자는 40대 남성이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해, 최하위에 속한 자영업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여성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2. 자영업에 대한 주요 정책 과제

- 자영업자의 근로소득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는 단순히 평균소득만으로 그들의 소득이 여전히 낮다거나, 반대로 낮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들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자영업자들의 양극화된 소득분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후, 관련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
- 향후 자영업 지원정책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성 자영업자 혹은 고령 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